

**주소** 1349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44 엠텍IT타워 / **전화** 031-627-0776 / **팩스** **031-627-0993**

**일 시 :** 2017. 7. 12

**수 신 :** 대학교 취업센터 및 관련 학과 사무실

**제 목 :** 현대오트론 2017년 하반기 경력사원 공채 안내

**현대오트론 2017년 하반기 경력사원 공채 안내**

**첨단 자동차 부품으로 자동차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현대오트론은 2012년 전자제어기, 차량용 반도체,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핵심 로직개발을 목표로 출범한 자동차 전자제어 연구 개발 전문 회사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및 차량용 전자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반도체, 제어기별로 전문화된 품질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그룹의 전자제어 전문 인력 통합과 외부 우수인재 영입으로 업계 최고의 연구 개발 인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현대·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케피코 등의 그룹사간 협력을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전자제어 신기술 개발과 시스템 단위의 통합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오트론은 ‘1등 차량의 1등 제어 기술 개발’이라는 비전 아래 파워트레인 제어기, 변속기 제어기, 친환경 제어기 등을 개발하여, 그랜저, EQ900, 아이오닉 등에 적용시킴으로써 반도체 기술의 국산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표준 플랫폼과 첨단 제어 로직을 반영한 보디·섀시 제어기, 미래 자동차 중심으로 성장할 친환경차의 연비 개선, 배기가스 저감 제어 기술, 자율주행과 스마트카의 요소 기술을 개발하여 미래 기술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현대오트론과 자동차 전자분야의 미래를 열어갈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오니, 귀교의 대학원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지 부탁 드립니다.

<다음장 참조>

**현대오트론 2017년 하반기 경력사원 공채**

**■ 모집분야**

|  |  |  |  |  |  |
| --- | --- | --- | --- | --- | --- |
| **모집분야** | **관련전공** | **담당업무** | **우대사항** | **직군** | **모집인원** |
| **차량융합제어** | 전기/전자/컴퓨터 /통신/기계 | • 이더넷 통신 개발  • 임베디드 SW 개발  • 멀티미디어 SW 개발  • ADAS SW 개발  • 소프트웨어 플랫폼(AUTOSAR) 개발  • 기능안전 대응 플랫폼 개발 | • 이더넷 및 차량 통신 개발 경험  • RTOS/Eclipse/Java/AUTOSAR 개발 경험  • Linux 관련 개발 경험  • 차량 제어기 설계/개발 경험  • 자율 주행 관련 개발 경험  • 기능안전 전문가 | 연구직 | 00명 |
| **파워트레인제어** | 전기/전자/컴퓨터/기계 | • 엔진/변속기 제어로직 개발  • SW Integration  • 엔진제어 신기술 개발 • 임베디드 SW 개발  • (친환경-차량/모터/전력/배터리)  제어기 SW개발 | • 임베디드 SW 개발 경험  • 엔진/변속기제어 로직개발 및  캘리브레이션 경험  • 엔진제어 신기술 개발 경험  (요소기술/PT 전동화 등)  • 차량제어기 설계/개발 경험  • 전력제어/배터리SW 설계/개발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 채용 홈페이지(hyundai-autron.recruiter.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요건**

1) 국내/외 정규대학(4년제) 이상 졸업자(석,박사 포함)  
2) 모집분야 유관업무 경력 3년 이상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4) 남자분의 경우 병역을 마치셨거나 또는 면제되신 분

**■ 지원기간**

**7/8(토) 09:00 ~ 7/16(일) 23:00까지**

**■ 지원방법**

당사 채용 홈페이지 접수(hyundai-autron.recruiter.co.kr)※ 지원 관련 문의 : 현대오트론 채용담당자(recruit@hyundai-autron.com)

**■ 전형절차**

서류전형 ▶ 인성검사 ▶ 면접전형 ▶ 최종합격

**■ 기타사항**

1) 지원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 제출이 불가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전형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계법 및 내규에 의거 우대합니다.

